

## 2005년 일본LPG업계 10대 뉴스

### 01 CP 500달러대 사상최고가 경신

사우디 아람코사의 CP는 2005년 11월 P535달러, B555달러를 기록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05년 평균가격은 P426.83달러, B436.75달러를 기록해 '04년 대비 프로판은 78.91달러, 부탄은 82.75달러 각각 상승했다.

### 02 수요개발프로젝트 '인간과 지구에 웃음을' 개시

일본LP가스단체협의회는 3개년 계획으로 수요개발·홍보프로젝트『인간과 지구에 웃음을』를 추진하기로 하고, 고효율급탕기·난방기기 및 LPG자동차를 중심으로 하는 수요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소비자등에 구체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가기로 했다. 앞으로 3년 동안 잠열회수용급탕기 150만대, 가스엔지 6만대, GT난로 785만대, LPG자동차 26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 03 일본가스체에너지보급촉진협의회 발족

LP가스단체협의회, 일본가스협회, 일본간이가스협회 이들 3단체가 업계의 틀을 넘어 가스체에너지 보급을 위한 체제를 구축하기위해 일본가스체에너지보급촉진협의회를 설립했다. 동협의회는 전기화 대책으로서 도시가스와 공동전선전을 구축하여 가정용 수요분야 개척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에너지환경대책과 관련하여 정책제언, 캠페인, 관련단체들과의 연계 활동 등에 주력하게 된다.

### 04 出光·三菱상사, LPG사업 통합, 원매사 재편움직임 본격화

LP가스 수입원매회사들은 저수익구조 탈피와 경영강화를 위해 기업통합 및 기업간 연계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 新日本石油은 7개의 자회사와의 통합을 실시하였고, 三光興産와 三菱商社가 오는 4월에 아스토머스에너지(주)를 설립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점유율에서 新日本石油를 제치고 LP가스점유율 20%, 수입량 300만톤 규모의 거대 원매회사가 탄생하게 되었다. 8월에는 伊藤忠상사가 大阪가스그룹의 日商LP가스와의 자본제휴가 예정되어있고, 岩谷産業가 口島가스주식을 취득하는 등 향후 원매회사들의 재편움직임은 가속화 될 전망이다.

### 05 LP가스 국가비축 시동

경제산업성은 LP가스의 안정공급확보를 위해 총저장능력 150만톤규모의 국가비축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石川県에 七尾기지(25만톤)가 '05년 7월에 완성되었고, 長崎県 福島기지(20만톤)는 10월에 완성되어 국가비축이 시작되었다. '06년 1월에 栃木県에 20만톤규모 비축기지가 완성될 예정이며, '08년도에는 愛媛県에 45만톤급 지하저장기지가, '09년도에는 岡山県에 40만톤급 저장기지가 완성될 예정이다. 한편

자원에너지청은 '06년도 예산에 20만톤에 상당하는 비축LP가스 구입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 06 GT난방기 보조금제도 개시

GT난방기(고효율) 도입촉진을 위한 보조금제도가 '05년 7월부터 시작되었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조금은 3억엔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일단협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보조금은 심사를 거쳐 지급되게 되며, 자원에너지청은 '06년도 예산도 3억엔을 요구하고 있다

## 07 일단협, 재해대응메뉴얼 책정

일본LP가스단체협의회는 LP가스업계의 「재해대응 메뉴얼」을 책정하여 재해시 LP가스공급 등에 대한 정보의 일원화, 긴급차량등록, 구조대파견 등 재해시 대응대책 및 훈련, 피해보고 등이 메뉴얼화했다. 또한 동 메뉴얼에는 피해정도에 따라서 상세하게 구분되어 있다.

## 08 고정위, 口西電力에 완전 전기화 영업에 경고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口西電力에 대해 완전전기화를 채용하는 주택개발사업자에 비해 가스와 전기를 병용하는 주택개발업자 등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독점금지법 19조4항의 「차별적취급」의 우려를 나타내 경고조치 했다. 口西電力은 공급용 변압기실 설치비 면제, 전선의 지하매립비용 지원 등에 대해 경고조치 되었다. 이에 에너지청은 에너지간 공정거래를 위해 별률개정안을 마련하여 전기사업법상 공급약관 등의 합리적인용기준을 정하고 공포할 것을 규정하였다. 문제가 되는 행위로서 ①전력회사의 자금지원으로인한 전선 지하매설, ②공급용 변압기실 설치면제, ③가스시설을 철거조건으로 한 완전 전기화, ④실내 배선공사비 부담, ⑤집합주택 미분양 물건 매매보증, ⑥완전전기화주택 과대광고 등 6개 항목을 들었다.

## 09 가정용 연료전지, 국가 대규모실증사업 시작

경제산업성은 '05년부터 약25억엔의 보조금을 교부하여 가정용연료전지(1kw급) 실증사업을 개시했다. 보조금 교부액은 건당 600만엔으로 LP가스사양 400대와 도시가스 사양 400대의 제품이 실증 운행되었다. 운전평가데이터에 따라 전력효율, 열회수효율 등에 의한 종합평가 및 발전효율 등 개별항목별로 평가가 이루어져 성적이 우수한 상위 3사(東京가스, 大阪)가 선정되었다.

## 10 프로판의 대부 岩谷直治씨 별세

일본 LP가스기업의 1인자로 岩谷産業의 창업자이며, 프로판의 아버지로 칭호받던 岩谷直治가 지난 7월 19일 109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岩谷直治는 1952년에 LP가스가 일반가정용 열원으로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이 사업에 뛰어들었으며, 일본의 LP가스 공급망구축의 원형을 제공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경보기 및 간이가스난로 개발 등 95세로 현역에서 은퇴 할 때 까지 한평생을 LP가스업계를 위해 헌신 했다.

(출처: 日프로판산업신문 제2285호)